

화순, ‘공모사업·국비’ 2,700억대…역대 최대규모

신성장 동력산업 등 역점 사업 추진 탄력

구충곤 군수 “인구감소 대응 시책 온 힘”

화순군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과 국고 예산을 확보해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 육성, 농촌 생활SOC 확충, 도농 균형발전 등 역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화순군은 역대 가장 많은 74개 공모사업(총사업비 1,436억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2022년도 국고 예산도 역

대 최대인 1,260억원을 확보했다.

유치·확보한 공모사업과 국비 규모가 1,000억을 넘는 적은 이번이 처음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화순군의 공모사업 유치와 국비 확보 성과는 민선 7기 들어 두드러졌다. 다소 차이가 있고 국비의 경우 감소한 때도 있었지만, 유례가 없는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공모사업은 2018년 493억→2019년 917억→2020년 945억→2021년 1,436억 규모였다. 국비 확보 금액도 2018년 710억→2019년 848억→2020년 718억→2021년 896억→2022년 1,260억으로 꾸준히 커졌다.

지난해 공모사업 규모는 2020년(945억)보다 491억이, 2017년 368억 대비 290%(1,068억) 증가했다. 국비도 2017년(479억)과 비교해 781억이나 늘었다.

규모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알차다는

평가다. 백신·바이오, 일자리, 농촌 생활 기반, 농·축산, 문화관광, 도시재생, 인구 감소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을 고루 유치했다.

민선 7기 미래 발전 전략 사업, 역점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사업은 ▲2022년 농촌협약 사업(총사업비 450억)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150억) ▲기능성 간편식 실증 플랫폼 구축(197억)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100억) ▲도시재생 뉴딜(80억) ▲일자리연계형 지

원주택(80억 원) ▲2022년도 농산물안전 분석센터 건립(48억) 사업이다.

특히, 백신·바이오 분야 신규 사업이 2022년도 정부 예산에 대거 반영됐다.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총사업비 263억·반영액 96억),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430억·14억), 백신 기술 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 랩 구축사업(40억·28억),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441억·131억)가 대표적이다.

화순군은 정부의 K-글로벌 허브화 전략 계획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발굴, 발

르게 대응해 결실을 봤다.

중앙부처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시행한 각종 정책 사업과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 평가 등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 수상 소식도 풍성했다.

중앙부처 평가의 경우 ▲지역 안전지수 평가 전남 1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상 ▲지방규제혁신 전국 최우수상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평가 최우수기관 ▲건강증진사업 장관상 등에 선정됐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공모사업 유치, 국고 예산 유치 성과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전략 사업, 역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장 동력 산업 육성, 인구감소 대응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

이병노 담양뉴비전연구소장 출판기념회

오늘 담양종합체육관서 2차례 개최 자전 에세이 ‘이병노의 꿈~’ 발간

오는 6월 지방선거 담양군수 출마의사를 밝힌 이병노 담양뉴비전연구소장(사진)이 18일 담양종합체육관에서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출판기념회를 열고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비전을 발표한다.

담양부흥시대의 청사진이 담긴 자전 에세이 ‘이병노의 꿈 이병노의 도전’에는 40년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퇴직 후 구상한 담양발전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

‘포용과 혁신의 리더십 이병노의 담양사랑 이야기’라는 부제의 자서전은 제1장 나의 발자취, 제2장 생각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제3장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제목 그대로 이병노 소장의

삶의 이력이 드러나 있으며, 제2장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껴왔던 소견들이 실려 있다.

제3장은 지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병노 담양뉴비전연구소’에서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지역 발전 전략 구상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잘사는 부자농촌 만들기 위한 농업분야 예산을 전체 군예산의 30% 수준으로 증액, 공동주차장 등 마을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마을 공동소득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를 실현하는 자립형경제마을 만들기가 제시돼 있다.

또 효도행정으로 아름다운 노후와 실질적 요양복지를 실현하는 향촌복지, 토지개발과 축산농장 등의 규제완



화를 통해 군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행복형 행정개혁, 제2일반산단을 조성해 담양형일지리를 만드는 방안도 밝히고 있다.

이병노 소장은 “소통과 화합, 그리고 함께 만드는 행복한 담양, 이것이 나의 꿈이며, 그 꿈을 이루고자 오늘날도 도전의 함찬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금성면 봉황리 죽림마을 태생으로 금성남초, 금성중, 담양중고를 졸업했다. 담양군 초대 자치혁신국장을 역임했으며 홍조근정훈장과 모범 공무원표창, 2019년 대한민국 신지식인(공무원 분야) 선정 등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담양=정일남 기자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최근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정남진 우드랜드 산림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유아 창의력 배양·성인 스트레스 해소 중점

장흥군은 올해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체험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체험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은 총사업비 2억 2,400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1~2월 중 위탁사업 운영 업체를 선정해 올해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체험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우드랜드 유아숲체험원 내 체험시설을 보완하고 노천 족욕탕을 추가 설치한다.

우드랜드 산림체험프로그램은 산림치유, 숲해설 교육, 유아숲 교육 총 3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산림복지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각 분야 전문인력(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

림치유지도사)을 투입해 유아에게 숲을 통해 감성과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는 유아숲 교육을 진행한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진로탐색 등 편백숲 우드랜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숲해설 교육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은 참여자들 모두가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숲의 계절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장흥=이옥현 기자

나주, 가족친화인증 현판 수여

나주시가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관내 기관·기업의 가족친화인증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청사 이화실에서 가족친화인증 신규, 재연장 기관·기업 8개소에 인증 현판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기업에 대한 심사를 통

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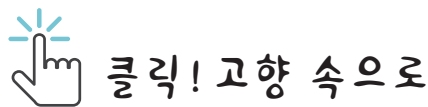
인증 절차는 ‘관리자의 관심 및 의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활용’,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 경영 직원 만족도’, ‘직원 인터뷰’ 등 심사 항목에 대한 서류·현장 평가로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새하정보시스템, ㈜위

테크, 한전엠씨에스㈜ 등 3개 지역 업체가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신규 지정, ㈜평화엔지니어링이 인증 연장됐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 마이크로맥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재인증됐다.

가족친화인증 기관은 여가부 인증마크 부여, 우수 기관 선정 시 정부 표창, 인증 전·후 경영전략 무료 컨설팅·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나주=이재순 기자



(주)해미로, 김·김자반 나눔 후원

나주시는 최근 빗가람동에 있는 김제조업체인 (주)해미로(대표 김삼문)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김 50박스와 김자반 10박스를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해미로는 최고급 품질의 김 유통을 위해 국내 최초 원조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업체다. 김삼문 대표는 “추운 겨울을 외롭게

지내실 어르신과 이웃들의 입맛을 돋우는 김을 후원 물품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과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나눔을 실천해준 김삼문 대표께 감사드리다”며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장흥 안양면, 이웃돕기 성금 기부 릴레이

장흥군 안양면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유재명 주민자치위원장과 위도열 이장자치회장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각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재명 주민자치위원장과 위도열 이장자치회장은 안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작년에 각각 1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

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윤양현 안양면장은 “해마다 자발적으로 성금을 기탁해 주고 정기적인 봉사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며 “나눔을 통해 이웃 간 서로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해송식품, 독거노인 지원 기부물품 전달

담양군 창평면은 최근 나주시에서 있는 해송식품(대표 김현선)에서 창평면에 혼자 끼니를 챙기기 힘든 독거노인을 위해 쌀달라며 김 200상자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송식품은 2020년 5월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해송식품 김현선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은 나눔으로 이러한 상황을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양현 창평면장은 “창평체육회와의 인연으로 이런 뜻 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해송식품에 감사하다”며 “임인년 한 해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일남 기자